

이 자료는 10월 11일 10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4회 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인 사 말 씀

2018. 10. 11.

금 융 위 원 회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올 한해 추진해 온 정책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 직원 모두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금년중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이라는
4대 전략을 기반으로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 ① 금융채신 : 금융당국 혁신 >

먼저,
‘금융부분 채신을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엇보다
국민들로 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왔으며,

그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금융당국의 낡은 업무관행도 적극 개선해 왔습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

금융회사의 경우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지난 2016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이에, 최고경영자(CEO)의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금융그룹 통합감독 >

또한, 금융그룹이 지닌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감독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② 생산적 금융: 금융생태계 조성, 창업·혁신기업 지원>

다음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 등
기업생애 주기에 알맞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단계에서는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무성과나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혁신기업이
금융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재고자산과 같은
동산담보를 활용한 금융상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중심의 모험자본이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회수와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③ 포용적 금융 : 정책서민금융 강화>

세 번째는 포용적 금융을 통한
서민과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하였으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금년중 약 6만명 이상의 금융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 국민들의 금융 이용부담 경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나친 고금리로부터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중 법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결제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밴수수료 체계도 개편한 바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및 보호강화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현장을 방문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과 고령층도
보다 쉽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④ 경쟁촉진 : 인가제도 개편을 통한 경쟁촉진>

마지막 과제는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선, 금융업권별

객관적인 경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되어 있는 일부 금융산업에도
성장의 모멘텀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 핀테크 등 금융혁신, 데이터 활용 활성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핀테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개발·실험을 지원하는
금융 테스트베드 제도를 운영하고

블록체인, AI, IoT 등 신기술이
금융분야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공통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권 데이터 산업을 선진화하고
정보보호 제도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3

마무리 발언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경제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튼튼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해주시는 제언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손병두 사무처장입니다.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입니다.

임규준 대변인입니다.

김정각 기획조정관입니다.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윤창호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최 훈 금융산업국장입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입니다.

이세훈 금융그룹감독 혁신단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금융위원회 간부 명단

연번	성명(생년)	직 위	주 요 경 력	비고
1	 최종구 (1957)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	 김용범 (1962)	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3	 송준상 (1964)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직무대리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4	 이성호 (1958)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사무소소호 변호사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 법무법인조율 변호사 	
5	 김학수 (1965)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6	 손병두 (1964)	사무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7	 김근익 (1965)	금융정보 분석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원회 금융현장지원단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연번	성명(생년)		직 위	주 요 경 력	비고
8		임규준 (1963)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경제신문 전산제작국장 • 매일경제신문 월간지 총괄국장 • 매일경제신문 디지털뉴스국장 	
9		김정각 (1969)	기획조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10		최준우 (1968)	금융 소비자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경제민생팀장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11		박정훈 (1969)	자본시장 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금융현장지원단장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12		김태현 (1966)	금융 정책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13		윤창호 (1967)	구조개선 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 	
14		최 훈 (1968)	금융 산업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UNDP 광역두만계획 사무국장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15		권대영 (1968)	금융혁신 기획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16		이세훈 (1970)	금융그룹감독 혁신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개발은행(ADB)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